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vol. **38**

Cover Story

목원 김구 <심터>
70x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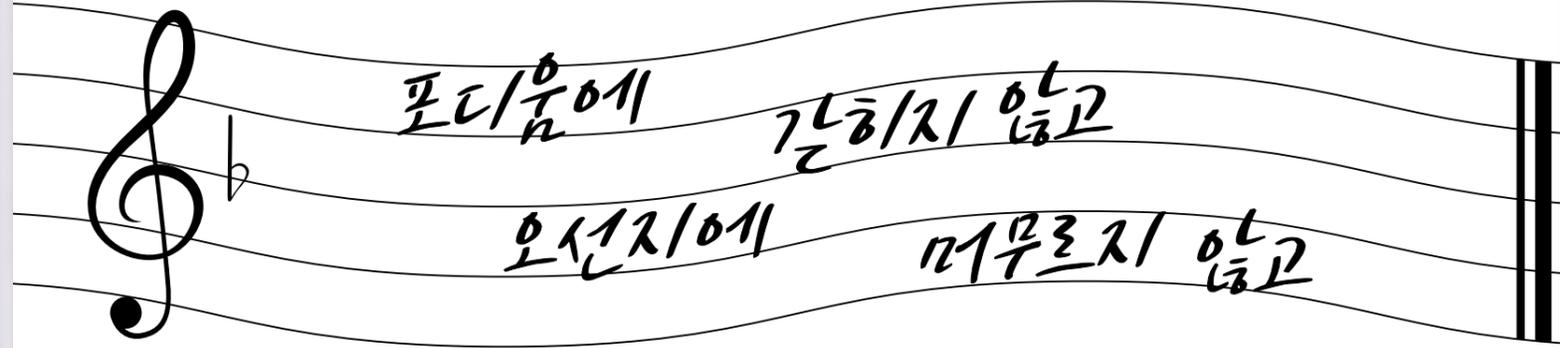
문인화의 대가 목원 김구 작가는 매우 절제된 느낌을 함축하면서도
실험적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작가만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에는 매화가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데, 추운 겨울을 나면서 일찍 꽃을 피우며
강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매화는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화의 가지 주변에는
참새가 늘 재잘거린다. 그의 작품 속 참새는 기쁜 소식과 다복(多福)을 의미한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구 작가는
2023년 대한민국 미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발행인 예경탁
발행일 2025.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Tel. 055 285 5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편집인 석수근
진행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055 296 4995)

CONTENTS

스페셜 인터뷰	04	포디움에 갇히지 않고 오션지에 머무르지 않고 - 창원시립교향악단 김 건 지휘자
스페셜 테마	08	한강 신드롬과 챗GPT 사이에서
아름다운 동행	12	40년, 한결같이 이어온 인연 - 경한코리아 × 숭대패사물놀이예술단
	16	음악은 바다 위 돛단배, 순풍이 되어 항해를 응원하다 - 한국야나세 × 경남원드오케스트라
메세나 인터뷰	20	아름답게 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 - 고운선치과의원 노창세 원장
	22	메세나는 단순 후원 이상의 투자 가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재호 원장
지금 경남예술	24	예향(藝鄕) 통영을 이어가다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26	경남 대표 추상미술가 유택렬 탄생 100주년
포토포엠	28	tree by. 노창세
문화공간	30	차 한잔의 자기수양 - 진주 죽향 차문화원
	32	마을에서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 하동 약양 입석마을
메세나 소식	34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 2024 경남메세나대회
	40	청년 예술인, 예술로 온기 전하다
	42	수상소식, 문화나눔사업, 회원사 지원사업
	44	LH아트프렌즈 - 경남메세나협회 X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조이 컬처	46	완벽함으로 차원을 넘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
	48	이성과 감성의 공존은 Romanticism
	50	Player's Playlist



창원시립교향악단 김 건 지휘자

한 소년이 있었다. 공연장 맨 앞자리에 앉아 지휘자의 몸짓을 보며 음악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커서 지휘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말은 기도가 되었고 이내 꿈은 실현되었다.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 지휘자의 모습이 가장 자유로워 보였고, 그 자유를 찾아 오랜 길을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에서 자유로워진 김 건 지휘자를 만났다.

지휘자가 꿈이었던 아이

지휘자가 꿈이었던 아이는 열한 살에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다.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올린을 계속해 보라고 권유받기도 여러 번, 그래도 그의 대답은 같았다. 무대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휘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열다섯 살의 나이에 지휘자로 데뷔해 지금까지 지휘자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지휘가 쉽지는 않아요. 모든 악기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 소리가 하모니를 이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 지휘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움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하마터면 허공에 흩어질 뻔한 음들이 지휘자의 손에 의해 하나의 소리로 모인다. 지휘란 여러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모으는 일이고, 같은 공간에 있는 관객들에게 옹은 연주를 들려주는 일이다. 창원시립교향악단(이하 창원시향) 김 건 지휘자는 예술에도 옹고 그림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그 확신과 단호함에서 음악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출처: 창원시립예술단

무대에서 혼자 관객을 등지고 70~80명의 오케스트라와 마주한다. 단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가느다란 막대기와 손짓에 의지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작곡가가 음표 사이마다 새겨 넣은 감정의 굴곡들을 소리로 표현하면서 ‘김 건 지휘자’만의 해석으로 ‘창원시향 다운’ 연주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포디움에 갇혀있지 않았고, 오선지 위에 머물러있지 않았다. 곡이 연주되는 순간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연미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워 보였다.

창원시향과 함께 걷는 길

그는 국내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알려진 지휘자였다. 내셔널 심포니, 내슈빌 심포니 등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했고 폴란드 킬체 필하모닉, 영국 브리튼 피어스 오케스트라, 캐나다 내셔널아트센터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이끈 경험도 있다.

그러던 중 창원시향의 러브콜을 받고 주저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커티스 음악원 입학 을 위해 한국을 떠난 지 25년 만이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창원시향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창원에서 연주를 펼치고 있다.

“혹자는 창원시향이 흔히 말하는 지역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한국 최고의 지휘자들이 이곳을 거쳐 가셨어요. 정치용 선생님이나 김대진 선생님 등 훌륭한 분들의 자리를 제가 이어갈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지난 3년은 창원시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잡는 시기였다면, 이제 앞으로 3년은 그걸 누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그에게 주어진 3년은 창원시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시간이다. 그가 포디움에 선 이후 창원시향의 공연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처럼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창원시향의 음악을 다른 도시에 가서 들려주고, 외국에서도 한국 음악을 선보일 기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창원시향이 만들어내는 공연 실황을 제대로 된 레이블을 통해 기록하고 싶어요. 판매도 가능한 퀄리티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창원시향을 알릴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역사가 될 거니까요.”

모두 하나 되어 만든 완벽한 연주

지난해 창원시향은 김 건 지휘자를 필두로 쇼스타코비치의 ‘전쟁과 평화’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그중에서도 쇼스타코비치의 8번 교향곡이 무대에 선보인 날, 창원시향은 음악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

사실 이 곡은 전 세계에서 무대에 올린 적이 몇 번 없었고, 국내에는 한 번 소개됐을 뿐이었다. 그는 이 곡이 지금의 창원시향과 가장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되짚어 봐야 할 곡이라고 생각했다. 쉽지 않은 곡이었지만 기본 실력이 탄탄했던 창원시향 단원들은 곡을 아주 잘 소화해 냈다.

그리고 마침내 선보인 무대. 무려 70분 동안 연주가 이어졌다. 그동안 성산아트홀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숨소리도 죽인 채 음악에

빠져들었다. 완벽한 연주와 자유로운 지휘,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던 관객의 매너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온전히 음악에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연주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와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좋은 연주는 좋은 음악, 좋은 오케스트라, 좋은 지휘자뿐 아니라 좋은 관객도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연주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창원시향은 음악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고, 관객 여러분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황홀한 순간을 맛봤으니, 그 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세세한 것들까지 신경 쓰고 있다. 지휘자를 비롯한 단원들 모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지만, 음악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진 요즘이다.

삶은 음악에 담기고, 음악은 삶을 바꾸고

그는 음악도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삶과 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으니, 세상을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곡을 연주할 때도 단순히 좋은 곡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정서에 맞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해 나간다.

“물론 모두가 아는 베토벤이나 브람스 곡을 연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런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음악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창원시향에서는 사실주의적으로 곡을 써낸 작곡가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쇼스타코비치는 늘 정치와 전쟁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그의 곡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곡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레퍼토리를 구성한 것도 그 이유였어요.”

2025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전쟁과 정치 등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래 고통받았던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싶어서다. 그래서 사실주의를 조금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곡을 선정했다. 올 한 해 신비주의와 문학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폴란드 작곡가 카롤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옳은 음악을 위한 지휘자의 역할

“지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은 옳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옳은 방향에 대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해 이 부분이 왜 좋은지 소통하면서 같이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지휘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는 악기로 구성되지만,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공연이 끝나면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고, 권위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통과 이해로 하모니를 맞춰 나간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늘 옳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서다.

그는 삶의 부분마다 자신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곡이 있다고 말했다. 열다섯에 지휘를 시작했으니 벌써 30년째 지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가 쌓여 있을까. 언젠가 ‘김 건 지휘자’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펼쳤을 때, 창원시향을 이끄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강 신드롬과 챗GPT 사이에서

김일태

시인, 이원수문학관 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경남문인협회 고문

Han Kang Syndrome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한강 신드롬을 계기로 한국의 문학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르네상스를 이룰 것이라느니 문학인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고 있다느니 하는 이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요즘 문학인으로서 어떤 체감을 하느냐는 질문을 더러 받는다. 무슨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으로 묻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솔직한 대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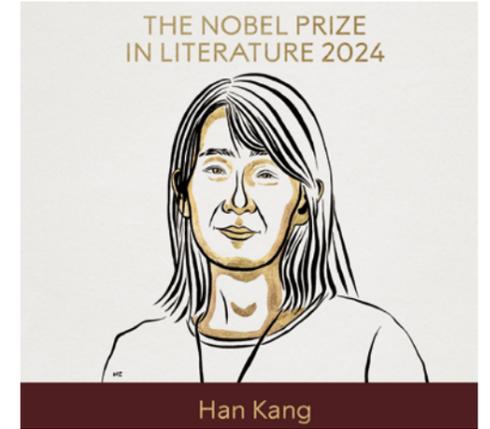
'시상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작품 쓰는 데 전념하고 싶다'라고 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세계 최고의 문학상 수상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업적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큰 관심사로서 문학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작가나 독자가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긴 하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집이 국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 외 별다른 문인들 개인적 신상 변화나 감흥은 없기 때문이다.

① 문학의 진화 과정과 챗GPT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태어난 예술은 미술, 음악, 무용이다. 재미 삼아 표현했던 지식이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또 도구가 발명되면서 이러한 예술 행위는 진화했을 것이다.

문학은 문자가 발명되면서 탄생할 수 있었다. 노래를 기록하면서 시가 만들어지고, 공연의 대본으로 기록하면서부터 희곡이 탄생했다. 짧은 시로 담아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수필의 형식이 되고, 이를 평가하는 비평이 나오고, 이 비평이 예술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면서 문학은 예술의 근간으로, 또 종교와 철학 사상 등을 아우르며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 문학의 발표 형식이 극화되면서 연극이 진화하고, 연극이 음악을 만나면서 오페라가 탄생하는 등 문학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문학의 중요성은 2천년대 문화의 세기로 들어서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화되어 문학진흥정책, 예술인복지정책, 인문증진정책의 중점 과제로 떠오르며 호기를 맞는 듯했다. 그런데 세상은 챗GPT와 같은 지능형 로봇의 출현으로 상정되는 4차 산업과 예술 향유의 다변화 시대를 맞아 문인들의 발상 전환과 문학단체의 운영체계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매우 커서 사실 기회보다 문학은 지금 일대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문자 외에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수많은 미디어가 탄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람이 붓을 들고 물감으로 그리지 않아도 다양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기 작가에 버금가는 소설과 신춘문에 당선작 수준의 시를 짓는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5분 만에 5분짜리 영화 한 편을 거뜬히 만들어내어 세상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 실경 형식 등 주문대로 생산해 내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계보다 산업계는 더 심각하다. 동사로 묘사되는 직업군이 사라지고 형용사 부사 직업군은 공존하며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른바 '들어 옮기고 나르고 분석하는 등 신체 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군은 로봇으로 전면 대체 되고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감성적인 영역은 공생한다는 것이다. 교육 영역도 이제 곧 책으로 된 교재가 사라지고 전자책 로봇 과외 선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고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앞서는 AI가 곧 완성될 예정이고 단지 범용 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킬 재앙적 위험 요소가 있어 출시가 좀 늦춰지고

1 ____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16세로부터 노벨 상을 수여받는 한강 작가
2 ____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노벨 문학상 강연을 진행하는 한강 작가
(출처: www.nobelprize.org)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순수예술은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섬뜩한 전망에 대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다.

② 챗GPT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역할

이러한 과학 기술 발전의 전망을 우리 예술인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할 것인가? 현대가 요청하는 이 소멸을 외면할 경우, 세상은 순수예술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예단한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우선 이해해야 할 중요 내용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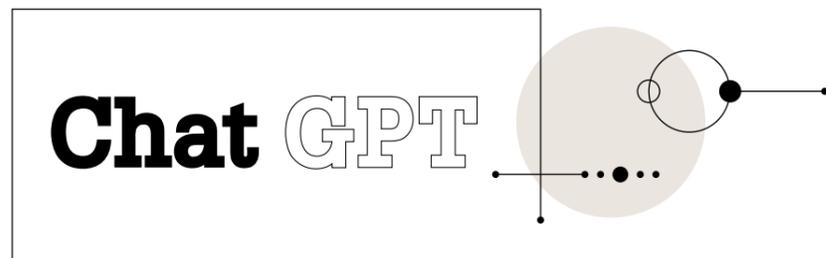
우리가 가장 우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산업 혁명에 따른 예술계 변화의 긍정적 수용이다. 예술인 대부분은 요즘의 지능형 로봇 출현을 예술 생태계 교란으로 여기지만 예술은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화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과학 기술의 변화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 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컴퓨터 기술과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이 서로 융합하여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문명인 것이다. 결국, 길과 길이 만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다. 혁신은 과거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법고창신의 개념이며 융합은 현재 주위에서 존재하는 가치들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의 개념인 것이다.

지능형 AI의 출현에 따른 이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가 한편으로는 우리 예술인들을 향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도 하다. 지능형 AI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역설적으로 예술 부활의 필요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노벨 재단에서 노벨 방명록에 서명하는 한강 작가 (출처: www.nobelprize.org)



현재 예술계가 맞이한 지능형 로봇 시대의 예술계는 비록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충격은 클지언정 예술의 표현 도구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능형 로봇이라는 도구가 사람 대신 글을 쓰고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가 하면 영화까지 만들어내는 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예술은 본질에서 사람이 세세하게 입력한 주제를 지능형 AI라는 도구가 프로그램 재료로 삼아서 여러 방식을 통해 누적한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해낸 결과물이며 사람이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 쓰는 도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최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이미 저작권 침해를 검색해 내는 로봇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예술을 버릴 수 없고, 예술이 필요하되 꼭 과거와 현재처럼 작품을 창작하고 책이나 전시나 극장 공연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통적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③ 문학의 진정한 가치

문학 사상 철학으로 함축되는 인문학의 핵심 가치로서 또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며 창의적 발상의 원천을 이루는 문학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우리 스스로 잠시 등한시한 것은 있을지라도 문자라는 소통의 도구가 존재하는 한 기록이라는 역할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향유자를 진실로 안내하고 희망을 품게 해 주는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갈등과 좌절을 겪으면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고통을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를 일깨우는 책무를 문학예술은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과학 발달로 도래한 지능형 로봇 시대의 예술계 생태 교란 적 전망이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문학은 희망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영국 출신의 추리 퍼즐 소설 개척자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든은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문제이다.’라고 했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며 세상과 일대일로 겨루는 예술이면서 또 빈곤과 좌절과 절망의 고통으로 피워 내는 꽃이자 결핍의 산물이다. 그리고 권력과 돈에 흔들리거나 결단코 세상에 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최소한 우리 문인들이 지켜야 할 핵심 덕목이다. 따라서 한강 신드롬에 기대거나 시대적 환경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예술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인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품고 있는 한, 무엇이 세상을 향해 질문하고 본질에 다가가려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면서 완성해가는 작품 창작 과정처럼 작금의 산적한 문제들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④ 문학의 비상을 희망하며

모든 예술은 융합과 분화를 통해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싫건 좋건 요즘은 SNS로 대변되는 뉴미디어 시대이면서 예술의 다양화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성’, 소비자 개개인을 이해하고 감성을 교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규정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융합과 분화의 시대’를 맞은 현대의 예술계는 전통적으로 구분되던 예술도 장르끼리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분화되어 나누어지는 사례들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문화콘텐츠 시장에 불어닥쳐 예술에 대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관객과 무대로 구분되듯이 예술의 생산과 소비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술 향유의 시대가

열려 참여적 소비자인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예술의 소비자가 되어 진정한 가치의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는 생활예술, 아마추어예술이 크게 확산할 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사회의 요구를 예술인들이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문학인들은 앞장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우리 한국의 문학은 어쩌면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길 앞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복지 혜택과 같은 양지의 길을 택해서 야성을 잃어갈 것인가 아니면 험한 길을 고수해 갈 것인가. 답은 명료하다.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작품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과 좋은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다.

챗GPT라는 작금의 미디어 메커니즘 성행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인식하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해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한강 신드롬은 한국문학 발전의 호기입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달 추세에 주눅이 들거나 한강 작가의 치열한 문학정신은 외면하고 이루어낸 성과만 탐내며 문학적 야성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려 들면 정말로 한국문학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문학은 감성과 창의성 그리고 상상력을 요구하는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서 진정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을 요구한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인간의 내면을 값있게 가꾸는 근원적인 사명,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고민을 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학이 갖는 본연의 가치이다. 따라서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실천할 때만이 제2, 제3의 한강이 탄생할 것으로 본다.

40년, 한결같이 이어온 인연

경한코리아 × 숯대패사물놀이예술단



‘아름다운 동행’이란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인연이 있을까. 1984년 창립한 경한코리아의 이상연 회장과 1985년 창단한 숯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오민재 단장이 딱 그러하다. 인터뷰 내내 40년 전을 회상하며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청년처럼 미소 짓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추억해 보자.



☞ 1. 경한코리아 이상연 회장 2. 숯대패사물놀이예술단 오민재 단장

예술의 힘을 아는 기업, 경한코리아

초정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한코리아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많다. 글로벌 강소기업, 620억 매출 신화, 폭스바겐과 아우디 같은 세계 굴지 자동차 브랜드 수출 기업 등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경한코리아의 기술력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한 또 하나의 수식어는 1984년 창립 이래 끊임없이 성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경한코리아 이상연 회장은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에 가입하기 훨씬 이전인 경한코리아를 창립할 때부터 문화 예술 후원에 앞장섰다. 이제 막 개발에 들어가 허허벌판이던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문화 예술에 완전 불모지였고, 지역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숯대패사물놀이예술단(이하 숯대패)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상연 회장 “근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문화 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지하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어 공단 근로자 노래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이어져 1987년도부터 근로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숯대패, 사물놀이, 국악, 그룹사운드, 중창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여 공단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랑극단 중 가장 크고 뛰어난 기예를 가졌던 솃대패를 계승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명맥을 잇기 위해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이 결성됐다. 1985년 오민재 단장이 주축이 되어 창단될 당시 상임고문이 이상연 회장이었다.

오민재 단장 “1985년 솃대패 팀원이 결성되면서부터 이상연 회장님과 이어온 인연이 벌써 40년이 됐네요. 회장님께서 저희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연습실도 마련해 주시고, 악기나 공연 소품 등도 후원해 주셨어요. 거기다 매년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무료 공연도 열어주시고요.”

이상연 회장은 예전부터 오민재 단장의 남다른 재능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 기업인으로서 전통음악을 지키고 보존하는 솃대패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다.

이상연 회장 “경한코리아에게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은 ‘문화의 상징’입니다. 솃대패는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한코리아가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깊은 문화적 이해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에게
경한코리아는
‘일편단심 후원사’

경한코리아와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은 2008년 매세나 매칭 펀드 결연으로 또 한 번 끈끈하게 이어졌다. 기업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솃대패는 매년 다양한 창작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

오민재 단장 “이상연 회장님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대중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했던 신생 예술단이 전국구 예술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 공연 사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세나 매칭 펀드 결연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한코리아는 매년 솃대패 정기공연에 직원들을 초청해 공연을 함께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과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신명을 나누며 유대감도 쌓을 수 있었다.

이상연 회장 “매년 공연을 볼 때마다 다양한 감동과 인상을 받습니다. 그중 몇몇 무대가 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작공연은 독창적인 매력으로 다가왔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볼 때면 ‘후원하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할 때 후원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민재 단장은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에게 경한코리아는 ‘이끌어 주는 후원사’라고 말한다. 경한코리아의 지원 덕분에 전통문화 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솃대패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후원을 약속하며

경한코리아 이상연 회장은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김제덕 선수가 양궁을 시작할 때부터 후원했으며, 모교인 경상북도 예천군 대창중·고에도 수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남오페라단 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경남메세나대상도 수상했다. 이런 나눔으로 시너지가 많이 발생하느냐는 물음에 이상연 회장은 “나눔은 행복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상연 회장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그게 그냥 기쁜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서 문화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를 지원해 활동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에 활동 동력을 불어넣어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한코리아와 솃대패사물놀이예술단이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 오민재 단장은 전통을 살리면서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결합한 복합적인 공연을 꿈꾼다.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지고, 춤과 디지털 아트를 결합해 관객들에게 새롭게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상연 회장은 솃대패를 국립극장 무대에 세우는 게 꿈이라고 한다. “우리 전통 음악의 흥과 신명을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제일 큰 무대에서 다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라며 끝까지 솃대패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두 사람의 소망이 담긴 무대를 곧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음악은 바다 위 돛단배, 순풍이 되어 항해를 응원하다

한국아나세 × 경남윈드오케스트라



음악의 길이란, 망망대해 바다를 돛 하나 달고 가야만 하는 일이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를 저어 도달하기에는 너무 아득한 거리. 하지만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면, 돛을 단 배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경남윈드오케스트라에 있어 한국아나세는 막막했던 항해 중에 불어오는 순풍이다. 땀 흘린 맘을 식혀주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덕분에 경남윈드오케스트라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1. 한국아나세 우영준 회장 2.경남윈드오케스트라 김영환 단장

창원 마산합포구에 자리 잡은 한국아나세. 선박과 해운 장비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고 있다. 거대한 동력을 지닌 큰 배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돛 하나로 바다를 항해하는 돛단배도 가까이 응원한다. 그들의 뒤에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다.

한국아나세 우영준 회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지난 2016년에 마산 창동에 경남 처음으로 기업 미술관을 개관했고, 2021년 그의 고향인 마산 진동으로 이전해 금강미술관과 정광갤러리를 개관했다. 음악에 대한 관심도 상당해서, 8년 전부터는 경남윈드오케스트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그들이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다. 우 회장이 고향에 지은 금강미술관에서 경남윈드오케스트라 김영환 단장과 우영준 회장이 그들의 공통 관심사인 '음악'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함께한 8년, 더 깊어진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경남윈드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술의 길은 참으로 막막했지만, 4~50명의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이면 연습실로 모여들었다. 같은 악보를 펴 놓고 함께 연주하면서 소리를 맞추는 일. 언뜻 보면 쉬운 일 같아도 살아온 궤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지금은 경남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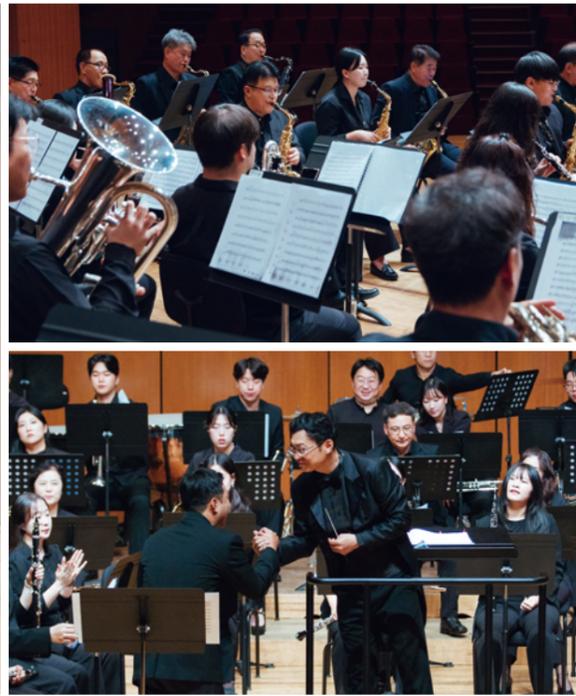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은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영준 회장이다. 8년 전, 당시 오케스트라 상임지휘를 맡았던 김영문 지휘자와의 인연으로 처음 경남윈드오케스트라를 만났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두말없이 후원자를 자처했다. 김 단장은 한국아나세의 후원 덕분에 경남윈드오케스트라가 순풍에 돛 단 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영환 단장 “한국아나세의 후원으로 성장 동력을 얻었고, 창단 17년 차를 맞은 지금은 경남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단체를 한국아나세와 더불어 성장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연습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경남윈드오케스트라의 성장은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든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기업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예술단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원하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영준 회장 “처음 지원할 당시 연습실을 방문했거든요. 무대에 오르는 한순간을 위해 일 년 내내, 매주 화요일이면 꼬박꼬박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연주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단원이 소리를 맞추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남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사진



기업과
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오르는
그날

김영환 단장 “창동에 금강미술관을 오픈했을 때 축하 연주를 하러 갔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교류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김 단장의 말에 우 회장의 표정이 환해진다. 평소 일이 바빠 경남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직접 보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영준 회장 “진동 미터덕축제를 비롯해 지역 축제에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야나세 창립기념일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직원들이 윈드오케스트라 무대를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깊어질 유대를 위해 창립기념일 무대를 약속하면서, 덧붙여 색다른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다. 바로 창립기념일 축하 무대에 예술을 사랑하는 우 회장이 함께하는 것. 바쁜 일정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는 어렵겠지만 깜짝 이벤트로 지휘자가 되어 무대에 오르기로 했다. 물론 무척 어설픈 지휘가 되겠지만, 두 단체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인상적인 ‘지휘자 데뷔’ 무대가 되지 않을까.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이 되어

우 회장은 금전적으로 경남윈드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음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준다. 시간이 될 때마다 공연장에 직접 찾아가 무대를 응원하고, 버스를 빌려 직원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기도 했다. 일정이 바쁠 때는 김 단장이 매번 챙겨주는 정기연주회 음악이 담긴 CD를 들으며 감상에 젖는다.

우영준 회장 “차에 타면 늘 경남윈드오케스트라에서 준 CD를 들어요. 이 한 장면을 위해 얼마나 연습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다. 단원들의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후원을 갹신해야 할 때가 되면, 예술단체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 후원을 이어간다. 예술단체에게 지원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덕분에 경남윈드오케스트라는 마음 편히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기업의 지원 덕분에 경남윈드오케스트라는 사설 예술단체로는 드물게 제대로 된 연습실과 제대로 된 악기를 갖추고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김 단장은 이것이 경남윈드오케스트라를 키운 동력이자 경남의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김영환 단장 “지역 단체가 공연 연습에 필요하다면 장소를 빌려주고, 필요한 악기도 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 단체도 한국야나세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 열매를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경남의 음악 환경이 조금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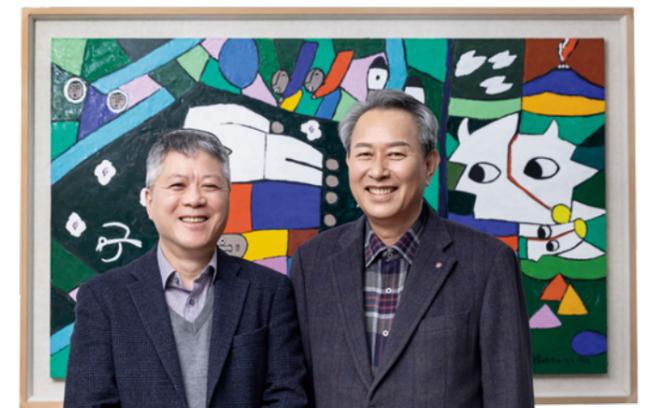
바람(Wind)이 분다,
뜻을 활짝
펼칠 시간

김영환 단장 “우 회장님은 여러 가지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색소폰을 닦았어요. 그리고 튜바와도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튜바는 음악의 깊이를 더해주고, 여러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메세나를 실천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 회장은 경남 문화예술계에 있어 언제나 색소폰이었고 튜바였다. 기업 경영은 물론이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언제나 인자하고 겸손한 자세로 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바람을 불어넣어야만 소리를 내는 관악기처럼, 뜻 하나에 의지해 항해하는 배는 바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야나세가 불어주는 바람에 힘입어 경남윈드오케스트라는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단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매주 연습실로 모여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김 단장이 아침 일찍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까지 음악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바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뜻을 활짝 펼쳐야만 하고, 실력을 갈고닦는 것만이 후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뜻을 활짝 펼칠 시간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



고운선치과의원 노창세 원장

아름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사진작가로서 혹은 후원가로서의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노창세 원장은 행복한 삶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직업인 치과의사로 사람들의 미소를 찾아주고, 비전업 사진작가로서 사진으로 삶을 성찰한다. 후원가로서는 힘닿는 데까지 문화예술로 지역에 공헌하고 있으니 그의 삶은 이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사진 찍는 치과의사

한때 부캐(부 캐릭터)가 유행했다. 부캐는 본캐(본 캐릭터), 즉 본업을 하는 자신 외에 제2의 자아를 뜻한다. 노창세 원장을 만났을 때 ‘치과의사 노창세는 본캐, 사진작가 노창세는 부캐겠구나’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사실 치과의사보다 사진을 먼저 시작했다. 치과는 2003년 진주 미르치과병원을 거쳐 고운선치과의원으로 21년째 운영 중이지만, 사진은 시작부터 따지면 34년째다.

“1990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어요. 사진은 ‘사실’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표현’의 도구로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돼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창세 원장은 주로 흑백사진을 찍는다. 색을 배제하고 회색톤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추상성’이 흑백사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 또한 아날로그 작업인 필름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가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액자의 크기와 형태를 고르고 전시 공간과 위치를 고려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과정에서는 직관에 의한 사유의 결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비전업 사진작가들의 축제 ‘사진진주’

노창세 원장은 2017년부터 진주시를 기반으로 한 비전업 사진작가들의 사진축제 ‘사진진주’를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다. ‘사진진주’는 우리나라 여러 사진축제 중 유일하게 비전업 사진작가가 중심이 되는 행사다. 2023년 열린 ‘사진진주’는 과거 방직공장이자 현재 목재 창고로 사용되는 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화제가 됐다.

“전시공간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진진주’ 초기에는 대안공간이나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 중 한 분이 프랑스 아를 사진축제에 참관하여 성당과 철도 공장, 시청, 수도원 등이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목재 저장고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삭막한 공장지대를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진주시의 문화 정책에도 부합되고, 지금까지 진주지역에 없던 새로운 전시 형태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

삶 속에서 생활예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까. 노창세 원장은 2022년 기업과 문화예술이 동행하는 취지에 공감해 경남메세나협회에 회원사로 가입, 온사진미술연구소를 매칭 펀드 후원 중이다. 후원과 동시에 운영위원장으로서도 계속 활동한다.

“향후에도 ‘사진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단체를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진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진 문화운동’으로서 사진 작품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인식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가는 예술작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작품 활동에서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하고, 대중은 예술 작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가치를 향유하는 인식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창세 원장은 사진 전시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도 깊이 이해해 현재 진주시 신안동에 갤러리를 짓고 있다. 갤러리는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전시와 작품의 건전한 유통의 고유 기능 및 기획 전시와 행사 등을 통해 예술문화 인식의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노창세 원장의 사진은 포토포엠(28-29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메세나는 단순 후원 이상의 투자 가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재호 원장

전 세계가 열광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제작비용은 253억 원. 넷플릭스가 추산한 이 콘텐츠의 가치는 9,110만 달러, 즉 한화 약 1조 원으로 투자 효율은 무려 41.7배에 달한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메가 히트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투자전문가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오재호 원장의 말은 다르다. "투자의 관점에서 무형 자산인 문화예술 콘텐츠의 성공을 짐작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이 자라고 있는 토양을 보면 오징어게임과 같은 총아를 예측할 수 있다"고



경남의 투자경제 전진기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처음 한류가 나올 때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변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몰랐죠.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의 예술혼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100명 중에서 90명가량은 포기하고 10명의 생존자가 또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살아남고 하며 문화가 창달합니다. 정부나 지역사회가 이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재호 원장은 30여 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근무하며 국내외 기업 간 무역과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투자전문가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에 취임해 경남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취임 한 달 전 개칭한 경남투자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선정해 선제적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투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설명회 등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외 기업과 투자 유관기관들에게 경상남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4,413억 원 투자 유치, 1,297명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투자도 변해야"

그에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물었다. "과거에는 품질, 가격, 기술 등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상품 경쟁이 치열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균일해져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정수는 인문학,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화두인 ESG 경영도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는데 구체제의 경영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소비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 금전, 정성이든 말입니다."

냉혹한 자본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그는 오히려 평화와 사랑을 강조한다. ESG의 목표는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메세나의 목표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널리 공유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다 고차원의 투자 가치를 지닌다. 메세나 기업은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업들은 결국 자본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메세나 참여가 경영평가 지표가 되면 참여 확대될 것"

그의 말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모두가 공감하지만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오재호 원장은 기업들의 메세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 문화예술 후원이 아닌 그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마케팅 상품으로 유도 등 기업의 이익 추구하고 연계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남과 같은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생산 업체가 집적한 경우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 핵심적이라고 또, 메세나 지원이 공공기관에서도 경영평가와 같은 일부 지표에 반영되어 그 가치가 단순한 후원이 아닌 기업을 위한 투자로서 인식된다면 메세나 참여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에 경남스틸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참석해 기업인과 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그곳이 지역사회의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타리가 더 넓고 튼튼하면 결국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향(藝鄉)



통영을



이어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2008년 국가적 차원의 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국예술 영재교육원을 설립했다. 이후 지리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영재들을 위해 세종과 통영, 광주에 각각 지역 캠퍼스가 조성됐다. 예향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고향, 풍경마저 예술인 통영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자리를 잡은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많은 부담을 느끼는 등 예술교육에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국 곳곳의 지역 캠퍼스가 생김으로써 수도권까지 가지 않고도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우수한 강사진들의 수업을 받는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 김소현 본부장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는 시민들이 내어준 공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어 있는 시간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TIMF행복학교나 음악교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나 ‘통영국제음악제’ 등 여러 기획 공연이 열릴 때 음악가들의 연습실로도 활용되며, 공연을 위해 통영을 방문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 클래스도 열린다. 통영국제음악재단 김소현 본부장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왔을 때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를 보여주려고 해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기관과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알릴 수 있고요.”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통영과 국내 예술영재 교육의 요람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만남은 지역 예술영재 육성을 넘어 지역민들도 좀 더 깊은 문화예술을 영위하며 예술도시 통영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예술 인재를 키우는 곳

주말을 맞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에서는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각 분야별로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학생들은 진주와 대구에서 멀게는 포항에서 오기도 한다. 교육지원팀 석효정 주무관은 “경상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학생들은 모두 통영으로 옵니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은 광주 캠퍼스, 세종이나 대전 등 충청권은 세종 캠퍼스로 지역 제한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연습실마다 붙여진 팻말이 모두 통영의 전통공예 나전칠기로 제작돼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통영의 멋이 배어있어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또 다른 자부심을 느낄 것 같다.

지역의 자부심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경상권 내에서 서울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캠퍼스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 영재들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경남 대표 추상미술가

유택렬 탄생 100주년

‘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전
경남도립미술관 12층 전시실
2025년 2월 16일(일)까지

그림이나 그리는 당신은 6·25전쟁 후 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다는 ‘흑백다방’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해를 찾는다. 진해 신시가지의 중심인 증원로터리에 위치한 흑백다방은 2층짜리 목조건물이다. 1층의 흑과 백으로 된 이중문을 열고 들어간다. 내부 역시 흑과 백으로 칠해져 있고 돌절구며 말구유 등 골동품이 장식돼 있다. 골동품을 개조해 테이블로 만든 것을 보니 예술가의 집이 맞구나 싶다.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의 클래식 선율을 들으며 벽에 걸린 현대 회화 작품을 감상한다. 이중섭, 전혁림, 김춘수 등등 분야마론 당대 예술인들의 작품에 흠뻑 빠져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건다. “흑백다방에 어서 오세요.” 주인장인 유택렬 화백이다.

유택렬의 예술세계와 14인의 예술가 조명

개관 20주년을 맞은 경남도립미술관은 유택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의 대표적인 추상미술가 유택렬은 동시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지만 평단에선 고(故) 유택렬 화백에 대해 교육자이자 문화운동가로서 면모를 강조할 뿐이었다. 개관 20주년 기념전 ‘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은 이러한 흐름에서 그의 전방위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유택렬의 예술세계를 오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과 흑백다방을 중심으로 유택렬과 연을 맺은 14인의 작품세계를 교차하는 방식이다.

전시는 경남도립미술관 1·2전시실을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눠 전개한다. 미술관 1층 1전시실을 ‘유택렬의 친구들, 흑백다방의 예술가들’로, 유택렬이 생활하던 집이자 화실이었던 2층 공간과 옥탑방의 작업실을 2층에 대입해 ‘유택렬, 염원의 선(線)’으로 구현했다.

피난 후 흑백다방에서 이어온 예술활동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유택렬은 6·25전쟁 발발 후 홍남철수작전 때 거제도도 월남해 1953년 진해에 정착했다. 월남한 시점에 피난수도 부산을 포함해 경남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귀향하거나 피난을 와 있었다. 흑백다방의 전신인 칼멘다방 시절부터 이들 예술가들은 흑백다방에 모여 예술활동을 이어갔다. 즉, 흑백다방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쇄했던 시대를 위로한 예술과 낭만의 발상지였다. 1962년 친구 이병길로부터 흑백다방을 인수한 유택렬은 1963년 이사해 3월 23일 간판을 올리고 신장개업한다. ‘흑백’이란 이름은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유한 집 후손이었던 유택렬은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육촌형 유강열(1920~1976)도 그러한 환경 속에 화가의 꿈을 키웠으리라. 유택렬의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이었다. 베토벤과 스트라빈스키를 좋아하는 등 클래식 음악에 해박했던 그는 당시 최신 LP레코드를 공수해 흑백다방을 수준 높은 음악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했다.

흑백다방의 문을 열 듯 미술관 1층으로 들어간다. 유택렬과 흑백다방을 찾은 14인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다. 금강산 스케치 여행 때 만나 진해에서 다시 재회한 이중섭(1916~1956), 마찬가지로 금강산 스케치 여행 이후 월남해 재회하고 1990~1991년 유택렬이 프랑스 방문 때마다 만나 교우한 한묵(1914~2016), 미술 정규과정을 밟지 않은 공통점으로 진해에서 1여 년간 동고동락하며 깊이 교우한 전혁림(1915~2010), 진해중학교에 재직하며 유택렬과 함께 진해미술협회를 이끌었던 김종식(1918~1988), 진해군항제와 진해미협 등 활동을 함께한 흑백다방 단골 최운(1921~1989), 진해 해군에서 만난 강신석(1916~1994)이다. 그리고 유택렬의 첫 제자이자 1981년 서울 전시를 적극적으로 도운 추상조각가 박석원(1942~), 유택렬과 시화전 및 연극 활동도 함께했던 문인이자 연극인 김수돈(1917~1966), 흑백다방에서 시사전을 했던 문인이자 극작가 정진업(1916~1983), 통영과 진해, 마산을 오가며 칼멘다방 시절부터 흑백다방을 종종 찾았던 시인 김춘수(1922~2004), 해군에서 만나 한국예총 진해지부를 함께 이끈 황선하(1931~2001)가 있다. 여기에 유치환, 김춘수, 전혁림 등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창립한 윤이상(1917~1995), 흑백다방에서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열었던 작곡가이자 영화 음악감독 정운주(1918~1997)등 회화, 시화,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걸렸다. 유택렬의 작품과 같은 듯 다른 점을 찾아보는 재미로 전시장을 누비자. 이들 가운데 있는 ‘흑백다방방’은 흑백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열린 공간을 지향했던 흑백다방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시 기간 예술문화 활동에 한 해 다목적, 다용도의 복합공간으로 개방·운영하니 개방·운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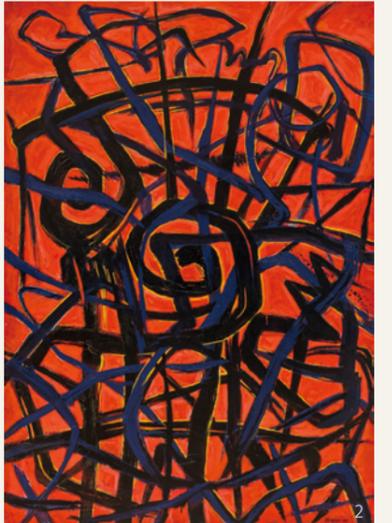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적 추상을 구축한 대가

유택렬은 미술 정규과정을 밟지 않고 오직 독학으로 화업을 전개한 추상화가다. 한국적 추상을 구축하고자 고군분투한 작가로서 그가 생애 전반에 일관되게 천착한 것은 선(線)이다. 한국의 토속신앙과 북청 문화를 토대로 북방식 고인돌인 돌멘(Dolmen), 암각화, 단청, 살, 제후, 부적과 같은 샤머니즘과 불교미술, 원시시대의 조형적 요소들을 활용했다. 유택렬의 작품은 크게 초기(1956~1960년 초반)와 중기(1961~1970년 중반), 후기(1974~1990년 후반)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평생 다룬 작품의 소재와 구조를 실험했다고 볼 수 있고 중기부터 소재와 형식에 따라 별도의 전개를 해 나가는 방식이다. 미술관 2층 전관에 걸쳐 그의 작품에 드러난 조형성을 바탕으로 8개의 하위색선으로 구분했다. 유택렬의 작품세계는 그의 불운에서 비롯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민족사적 불운 속에서개인적으로도 강제징병과 이산가족이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일까 한국적 추상을 모색하던 초기부터 생과 사의 무한한 연결성에 주목한 ‘돌멘(Dolmen)’ 시리즈를 1970년대 중반까지 그린다.

- 1 유택렬 작품 60-L, 1986, 캔버스에 유채, 97x162.2cm, 경남도립미술관 소장
- 2 유택렬, 부적에서, 1994, 캔버스에 유채, 174x124cm, 개인소장
- 3 흑백다방 앞에서 유택렬, 1960년대, 유승아 소장



이때 옵 아트(Optical Art)와 미니멀 아트 등 현대미술의 조형적 경향을 대입하는 시도를 했다. 단청의 오방색을 차용하며 이승과 저승을 잇는다는 새, 고대의 암각화 등을 조형 언어로 그렸고 이는 점차 선(線)으로 귀결된다. 그 핵심이 바로 부적이다. 어릴 적 집안 곳곳에 붙어 있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 등 어릴 적 겪었던 샤머니즘적 경험을 토대로 부인의 병환과 죽음을 거지며 독자적인 언어를 구축해 낸다. 선(禪) 사상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끊어지고 휘어지고 흐르며 무한히 반복된 선들은 유택렬의 신체를 통해 기운생동하는 선, 영적이고 주술적인 선, 업보를 뿌리치는 선, 염원의 선이 된다. 그가 평생을 일궈낸 한국적 추상이다. 경남도립미술관, 아니 흑백다방을 나서는 손님에게 주인장 유택렬이 묻는다.



“그림은 맛이 있으셨소?”



희망의 그림자는 울지 않는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간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 중



tree#26

tree#06

Photo by 노창세

차 한잔의 자기수양

진주 죽향 차문화원



우리나라 차(茶)는 약 2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 가락국 허왕후가 시집을 때 차나무 씨앗을 가져왔다는 설이나 신라 흥덕왕 때 대령공이 당나라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 화개동에 심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 등이 전한다. 한편,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차인은 신라 경덕왕 시대의 충담스님이다. ‘안민가’를 지은 그 충담스님 말이다. 진주의 죽향 차문화원 김형점 원장은 ‘귀정안민(歸正安民)’ 즉 올바른 삶의 자세를 상기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한국 차의 정신이라 말한다.

진주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수도

신라시대 사찰을 중심으로 대중에 보급된 차문화는 관례, 혼례, 제례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 잡았으나 유교 국가인 조선 건국으로 침체되기 시작한다. 결국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거쳐 소실될 위기에 처했던 차문화는 사천 다솔사의 효당 최범술과 아인 박종한, 차농 김재생, 은초 정명수, 아천 최재호, 경해 강명찬 선생, 무전 최규진 등에 의해 진주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차인들의 단체인 ‘진주차례회를 결성하며 우리나라 현대 차의 기틀을 닦았다. 그래서 진주를 차 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다.

1979년 전국 최초의 현대적 전통차집이 진주에 생기고 그 이후 진주에서 여러 차집이 생겨났다. 죽향 차문화원은 1997년 무렵 문을 열었다.

“대학교 때 처음 차를 마시고 인연을 맺었으니 차 마신 지는 오래됐죠. 본격적으로 죽향이라는 당호를 걸고 이곳 동성동에서 업을 한 지는 28년 접어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주시청이 여기 있어서 진주의 중심이었는데 차집을 열고 싶었는데 주인분이 여기서 해보라셔서 좋은 자리를 얻게 됐죠”

좋은 차를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공간

죽향이란 이름은 ‘죽로차’에서 따왔다. 대나무 앞에 맺힌 이슬이 차나무 앞에 떨어지면 그 찻잎은 굉장히 달고 부드러운 ‘죽로차’가 된다. 그러니 죽향이란 좋은 차의 대명사인 것이다. 이 좋은 차를 모두에게 맛보여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죽향을 시작했으니 의지도 남다르다.

“개업하기 전에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차집을 정해두고 바빠도 차를 마시며 여유를 갖고 집중할 시간을 냈어요.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차 마시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죠. 내가 차집을 연다면 문을 안 닫아야지. 그래서 차집을 연 후로는 문을 한 번도 닫지 않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휴업을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스런 일이었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간에서 좋은 차를 마신다. 죽향은 2층 규모로 아래층에는 차집과 다구점, 위층에는 차회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점 원장이 추구하는 차는 선(禪)이다. 공간 역시 본질을



추구하기에 군더더기가 없다. 뽑내는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뽑이 난다. 형식을 추구하기보다 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차문화와 닮았다.

“차를 마시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일”

김형점 원장이 말하는 ‘차 마시기’란 공존이다. 그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물을 끓인다. 좋은 물을 끓이고 찻잎을 내어 만물일체에 한 잔을 공양하고 스스로에게 한 잔을 올린 뒤 손님들에 낸다. 우주의 무수한 에너지가 몽치고 흩어지고 다시금 몽치길 반복한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주전자를 비우며 이 에너지를 갈무리한다. 일상에서 좋은 차 한 잔 마시는 방법을 그에게 물었다.

“어렵지 않아요. 밥 먹듯이 쉬워요.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다 자기 개인 텀블러나 머그잔이 있잖아요?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어요. 가라앉으면 마셔요. 그게 1단계예요. 그다음에 좀 더 차를 집중해서 알고 싶으면 물과 차의 양을 계량해서 할 것이고 ‘언제 따르니 맛있더라’ 하는 정보를 축적하겠죠. 여러 번 우리고 여러 차례 마시면서 아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목을 축이고 그다음에 깨달아 중생을 구하는 일이에요. 호흡을 진정하고 하루 시작에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며 명상하면서 고요를 찾고 행복을 찾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죽향 아리랑”

김형점 원장이 진주에서 우리는 차 한 잔의 향취에 전국에서 사람이 찾는다면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곳 죽향과 사랑에 빠졌다. 차회에서는 종종 음악회가 열리고 카운터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나 공연 티켓이 늘어섰다. 이곳을 단골삼은 문화예술인을 일일이 헤아리는 것은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생략한다. 예인뿐 아니라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싶은 범인들도 문턱 닦도록 드나든다. 인간이 정해놓은 형식보다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이곳 죽향에선 오늘도 ‘죽향 아리랑’이 들려온다. 죽향을 사랑한 임동창 작곡가가 헌정한 곡에 김 원장이 가사를 붙인 것이다.



죽향아리랑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예술의 향기에 흠뻑 젖어요.
신령스런 차 한 잔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
죽향 향기로 맡아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죽향 향기를 따라간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흥(興)也라.

죽향차문화원
◎ 경남 진주시 남강로659번길 10-1 2층
◎ 10:00 ~ 22:00 (연중무휴)

마을에서 진짜여행이 시작된다!

하동 악양 입석마을

우리나라 다섯 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악양에 들어서자마자 차를 버리고 걷고 싶었다. 바쁜 가을을 보낸 뒤 여유로운 평사리 들판에 마음이 풀리고 '슬로존'이란 달팽이 모양의 표지판에 웃음이 피어난다. 윤슬로 눈부신 동정호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악양의 모든 풍경이 입석마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부디 악양 입석마을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되도록 천천히 둘러보자.

입석마을 사랑방, 마을미술관 선돌

“입석마을은 악양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마을이에요. 마을 입구에 악양을 깨우는 나팔수 작품을 설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입석마을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총괄한 하의수 작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놓쳤을지도 모른다. 마치 몇십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작품이 마을에 녹아 있었다. 마을의 입구부터 마을미술관 선돌이 있는 중앙까지 올라가는 곳곳에 나무 옆에, 정자 안에, 지붕 위에 설치된 작품들이 마치 마을의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아름다웠다.

과거 마을의 공동작업장이었다가 창고로 방치됐었다는 마을미술관 선돌은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당선돼 외관을 리모델링한 덕분이다. 미술관 이름을 '선돌'이라 지은 것은 '입석' 이전에 불리던 마을의 옛 이름이기 때문이라. “주민들이 기증한 베들, 담뱃대 등 유물부터 주민들의 작품도 전시해요. 미술관 안은 주민들의 삶이 비치고 걷은 마을 경관이 비치게 꾸몄습니다.” 하의수 작가는 마을미술관 선돌은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다가올 계절이 궁금한 것처럼 앞으로 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전시될지 궁금해진다.



준비된 마을은 다르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

입석마을의 변화는 2018년 악양 일대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면서부터다. 2018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최참관댁 입구부터 하평마을, 대촌마을, 봉대마을, 하덕마을까지 큰 길의 양옆으로 작품을 설치해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길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마을 안까지 들어오게끔 하는 안내자가 되길 바랐다. 하의수 작가는 당시 프로젝트는 우수상을 받을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작품성 위주로만 진행돼 아쉬움이 있었다며 “마을미술프로젝트인데 왜 마을이 없느냐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어요. 작품들에 주인을 만들어주고,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진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했죠.”라고 말했다.

하의수 작가는 입석마을을 만나 2020년 다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도전했으나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며 마을과 점점 친해졌다. 마을미술관 선돌은 이때 만들어졌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는 마음으로 도시 미술관과는 다른 입석마을만의 미술관을 만들었다. 덕분에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해 11점의 작품을 설치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마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마을 전체가 캔버스

입석마을은 하의수 작가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마을 전체가 캔버스다. 마을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은 작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마을을 천천히 유심히 둘러봐야 한다. ‘선돌마을 이야기’라는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구슬 전화기>도 공중전화기로 착각하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네 명의 채록가와 일곱 명의 주민이 함께 만든 작품은 실제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섬진강 물소리, 당산나무 새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을 수 있다.

마을 보호수맞은편 돌담도 <심수상응(心手相應)-새로운 기억 만들기>란 작품이다. 마을의 역사를 함께 한 돌담이 정비를 위해 사라지는 아쉬움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쌓았다고 그 주변으로 <마을을 지키는 새>라는 오리들이 보인다. 이미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작품들은 여전히 마을의 이야기를 품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주민들도 마을 미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앞으로 작품들에 쌓여갈 이야기가 기대된다. 입석마을만의 미술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다.

마을미술관 선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8-1
 10:00-18:00 (월 휴관)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24 경남메세나대회



2024 경남메세나대회가 지난 11월 28일(목) 창원 리베라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두 모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예술 지원에 매진해 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올해로 17년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2년 연속 200개 팀 이상이 결연을 맺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에 2024 경남메세나대회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이번 행사에는 메세나 기업인과 도내 문화예술단체 대표, 유관기관장 그리고 청년예술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념하고, 지속가능한 경남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해 소통했다. 예경탁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술단체에 후원한 메세나 기업인들과 그 후원에 보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작금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기업과 예술의 더 긴밀한 동행을 통해 경남 문화예술이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메세나는 기업과 예술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예술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서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최화범 의장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4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1명의 문화예술유망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대에 오른 문화예술유망주들의 공연 그리고 올해 Arts&Business상 수상 예술단체인 굿데이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대양산업가스(주) 대표이사 박종춘

산업용 가스 제조 전문 회사인 대양산업가스는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기업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지원, 직원들의 자기 계발 지원에 앞장서며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 예술 진흥을 위한 메세나 실천

대양산업가스의 메세나 활동은 경남메세나협회의 창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근 도시에 비해 진해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이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년 경남메세나협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회원사로 참여하며 경남지역에 메세나 문화가 든든히 뿌리내리는 데 힘을 보탰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협회 감사사(社)로 활동하며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전통예술 전문 예술단 '예술단 樂'과 결연을 맺고 예술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15년째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이 귀한 인연 덕분에 예술단 樂은 전통음악에 대한 탐구와 교육, 연주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매년 전국을 누비며 60회에 달하는 공연을 소화하면서 우리 지역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예술단 소리여행과 경남창원시낭송협회의 활동에도 힘을 보태며 다양한 장르에서 경남 예술이 진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대양산업가스의 나눔은 문화예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계광장학회, 디딤돌 봉사회,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은 벌써 25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외계층과 아이들을 위한 도서 나눔을 실시하고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남대학교 발전기금을 쾌척,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일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춘 대표는 30년 넘게 기업을 일구어 오면서 때때로 힘이 드는 때도 있었지만 나눔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다시 비워야 또 채워지는 순환의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영 청아의료재단 이사장



마산 내서읍에 위치한 청아의료재단은 환자와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다. 청아의료재단을 이끄는 최재영 이사장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가 더 밝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그들의 첫 무대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후한 남성들의 합창에 '가슴이 뛰었다'고 말하는 관객이 있다. 그 공연의 예술감독이 그에게 중창단의 단장직을 제의하자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과 남성중창단 경남프리모앙상블의 '첫 만남의 순간'이었다. 두 단체의 인연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경남프리모앙상블의 창단 음악회에서 큰 감동을 받은 최재영 이사장은 IMF 사태라는 경제적 부침 속에서도 경남프리모앙상블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희망을 전하는 문화예술의 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우리 지역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했고, 청아의료재단과 경남프리모앙상블의 관계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며 경남 제1호로 'Arts & Business'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또 17년이 지난 오늘, 최재영 이사장과 청아의료재단의 관계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며

경남프리모앙상블의 무대를 응원하던 최재영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는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경남프리모앙상블과도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다. 최재영 이사장은 연주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무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처음 무대를 보고 그가 받은 감동을 다른 관객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최재영 이사장의 지원은 매칭펀드 후원에 그치지 않는다. 단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유학을 떠나는 단원들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단원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도 늘 함께하며 예술인들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남프리모앙상블과 경남프리모앙상블 단원들은 한 해도 빠짐없이 청아의료재단 병원 송년음악회를 열어 환우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경영상
(썬)웰템
대표이사 박정우



근로자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돕다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훈훈하게 또 때로는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 냉·난방 공조기 전문 제작 업체인 웰템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인지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창원근로자문화기획단에 후원하는 이유는 특별하면서도 단순 명쾌하다. 바로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합창단이기 때문이다. 박정우 대표는 우리 직원들과 같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합창단인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창원근로자문화기획단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웰템과 인연이 맺어진 후,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쳐갈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지쳐있던 시기에도 웰템의 지원 덕분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 근로자문화기획단은 창원LG 세이커스 경기 애국가 제창, 진해군항제 축하공연, 합창행복콘서트, 창원합창페스티벌 참가 등 다양한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실력과 열정을 뽐내며 우리 지역 근로자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웰템이 세상에 뿌린 씨앗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 현상이 썩 썩 얼어붙었던 지난 몇 년간, 웰템은 문화예술 현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결연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 곳곳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사내에서 미술 전시회와 미술 교실을 열어 임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문화경영 활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웰템이 세상에 뿌린 작은 씨앗이자 웰템이 곧 피워올릴 꽃이 될 것이다.

문화공헌상
(썬)에이스코트
대표이사 정철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국내 최고 수준의 코팅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제지용 블레이드, 방산 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에이스코트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메세나 활동을 비롯한 사회 공헌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정철호 대표이사는 어린 시절 소설가를 꿈꾸었다. 소년은 산업 전선에서 활약하는 걸출한 기업가로 성장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화예술에 대한 꿈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업가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공헌하기 위해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후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함안을 대표하는 함안윈드오케스트라가 바로 그중 하나다. 여느 예술단체가 그러하듯 함안윈드오케스트라 역시 창단 초기 운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선뜻 나서준 것이 바로 에이스코트다. 함안윈드오케스트라는 에이스코트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함안 관내 관공서, 도서관, 전통시장 등 함안 군민들이 있는 곳으로 두루두루 찾아가며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에이스코트는 메세나 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함안군 장학 재단에 장학금 기탁하고 모교인 마산공업고등학교에 교육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등 아이들이 꿈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이스코트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고민할 것이다.

좋은 목소리가 좋은 운을 부른다.

타임기술은 군수분야에 특화된 기술번역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T-50, FA-50, 해군 군함용 감속기, 육군 K21 장갑차 등 대한민국 국군의 중요 무기체계 개발과 운영 과정에 주축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통합체계지원(IPS) 전문기업이다. 타임기술의 주양호 대표는 평소 ‘좋은 목소리가 좋은 운을 부른다’라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따뜻한 좋은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위해 선생님을 찾던 중 굿데이남성중창단 단원들을 알게 되었다. 단원들의 뛰어난 음색과 남다른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은 주양호 대표는 이들의 예술적 여정을 응원하고자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좋은 하루’를 선물하는 굿데이남성중창단

2013년 지역 성악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굿데이남성중창단은 뛰어난 실력과 강한 무대 카리스마로 주목받는 전문 연주단체다. 타임기술과의 결연 이후, 굿데이남성중창단은 더욱 풍성한 음악적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후원에 보답하고자 중창단은 타임기술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축하 무대를 선보이며 행사의 품격을 높였고, 매년 타임기술과 종합군수지원(ILS)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위한 ‘ILS인의 밤’ 연주회를 기획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타임기술과 굿데이남성중창단의 아름다운 동행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하루(Good Day)’를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연습도, 자기 관리도 프로처럼!

발레라고 하면 으레 단아한 몸짓의 가녀린 발레리나를 떠올리지만,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발레리노도 있다.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노를 꿈꾸는 강동엽 학생은 본인이 존경하는 마린스키 발레단의 김기민, 전민철 발레리노의 뒤를 잇는 훌륭한 발레리노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유망주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프로 못지않게 연습과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강동엽 학생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원까지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한편, 또래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피자 대신 건강한 음식만 엄선해 섭취하며 몸 관리에도 열심이다. 영재교육원 내에서도 ‘수업 태도가 훌륭하며 나이에 비해 기특한 점이 많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성장하고 있다.

강동엽 학생의 타고난 표현력과 꾸준한 노력은 각종 콩쿠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25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적 권위의 Youth America Grand Prix 한국 예선에서 TOP 20에 선정되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강동엽 학생의 의미 있는 도전에 경남메세나협회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rts & Business상
(썬)타임기술 대표이사 주양호 &
굿데이남성중창단 대표 김 한



문화예술유망주
강동엽(발레)
장재초등학교 5학년



청년 예술인,

겨울에 접어들었음에도 이른 봄과 같이 따뜻했던 어느 12월 중순 오후, 경남메세나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 경남메세나협회 과장님이 나에게 “도내 신진 청년 예술인들의 뜻깊은 공연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고, 약간의 자료조사를 마친 후 행사 당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저것 일들로 시간을 바빠 보내다 보니 그날은 금방 찾아왔다. 27일 금요일, 아침을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창원시 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하자 만원인 주차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다. “아, 오늘 행사가 작은 규모가 아니구나”라고 직감했다. 건물에 들어서니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관장님께서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다. 회의실에는 오늘 행사의 공연자들인 15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예술인연합회’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이 곡에 강조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등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나는 간단히 목례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연합회원들의 열정적인 공연 준비



예술로 온기 전하다

모습을 바라봤다. 몇 분 후, 연합회원들은 복지관 내 어르신들을 찾아가 한명 한명에게 인사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마치 멀리서 온 손주들을 만난 듯 반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잘 짜여진 행사 계획을 따라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체조를 30여 분간 진행했다. 수십 명의 어르신, 연합회원, 복지관 관계자 등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팔과 다리 등을 움직였다. 이때쯤 옆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나왔다.

이후 연합회원들을 포함한 우리들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식사를 하고,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시작했다. 오늘 열리는 주행사인 ‘찾아가는 예술 트럭’ 공연 준비였다. 연합회원 중 공연장 여기저기를 분주히 뛰어다니며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의 행사에서 가장 바쁜 인물이었던 신재민 연합회 회장이었다. “플루트는 여기서 좋고,



첼로는 저기, 트로트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똑 부러진 모습과 웬지 신뢰가 가는 목소리를 내며 회원들 한명 한명을 챙기던 신 회장은 과연 지휘자, 나아가 리더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공연 준비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어느덧 어르신 한분 한분이 공연장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현장은 약 70명 이상이 들어찬 만원이었다. 곧 바로 연합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작은북인 소고를 나눠줬다. 어르신들은 나눠 받은 소고를 연합회원들의 도움에 따라 한국 전통 문양의 스티커로 장식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아기가기한 흰색 모양을 한 방울 달린 소고는 만들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있었다. 공연에서 흔들며 응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되는데...”,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소고 제작에 흥미를 보였다.

공연은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곡이 이어진 뒤, 영탁의 ‘막걸리 한잔’,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등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곡으로 진행됐다. 취향에 맞는 곡들이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은 소고를 열렬히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우렁차고 기고 가득한 연합회원들의 목소리, 빼어난 음색의 연주와 어르신들의 합창이 하나의 하모니를 형성하며 공연을 색다른 ‘흥’으로 장식했다. 현장에서 공연을 지켜보던 석수근 경남메세나협회 전무는 “오늘 공연은 이전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비교해 또 다른 매력이 돋보인다”며 “동고동락하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한다.

얼마 후 오늘의 ‘작은 축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났다. 공연을 마친 연합회원들은 어르신들을 배웅한 뒤 현장을 정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한편 오늘의 공연 성과에 대해 한마디씩 나눴다. 나 또한 연합회원들의 ‘다음의 축제’를 고대하며 복지관을 떠났다.



수상 소식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회장, 한국메세나대회 메세나인상 수상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회장이 2024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메세나인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메세나인이자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조성제 회장은 20년 넘게 장애인 예술인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기금'을 조성하여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16년간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을 지원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조 회장의 이러한 노력은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메세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의 손수나 과장은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기업과 예술계의 상생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손수나 과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로서 꾸준한 창의와 열정을 보여주며 경남 지역의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수상은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온 경남메세나협회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나눔 사업

문화예술을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 예술인들과 손잡고 도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협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문화소외 계층을 두루 보듬었다. 봄의 문턱에서 경남국악예술단 가인은 서부경남 지역 문화 사각지대를 찾아 흥겨운 국악 선율을 선물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된 <효 콘서트>에는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으며 연말에는 대학생예술인연합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조 교실과 공예 교실을 열어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참여형 음악회를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래의 주역인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을 통해 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강수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에 초청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사 지원 사업

기업과 예술이 동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문화서비스

문화예술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예술의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가 하면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한 임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음악으로 응원해 주는 풍경들이 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 문화서비스인 '찾아가는 음악회'와 '문화 송년회'를 활용하는 회원사들의 이야기다.



새해 시작을 음악과 함께, 씨티알×리즈오페라단

2024년 1월, (주)씨티알은 변함없이 문화예술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씨티알의 후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즈오페라단은 매년 초가 되면 후원사인 씨티알을 위한 신년음악회를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날의 신년 음악회는 새해의 소망을 담은 희망의 선율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이수디엔씨×창원시원드오케스트라

한적한 시골 마을 어디선가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온다. 소리에 이끌려 간 곳에는 아담한 무대가 있었다. 이 무대에서는 이수디엔씨(주)와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무대 위에서 펼쳐진 색소포니스트 김성하, 클라리네티스트 김영환, 가수 김동호, 윤성미의 열정적인 공연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했다. 가을밤, 음악회를 찾은 주민들은 예술의 감동으로 일상의 피로를 씻어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문화예술로 응원한다, STX엔진×팝페라 그룹SUBITO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해온 직원들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책임져 온 STX엔진(주)의 직원들의 퇴임식은 특별한 공연으로 빛났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퇴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인생 2막의 출발점에 선 이들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는 예술을 매개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나눔사업 문의 ☎ 055-285-5612

함께 나누면 더욱 행복한 문화예술. 지역민들의 삶이 문화예술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경남메세나협회가 함께합니다.

회원사 문화서비스 문의 ☎ 055-285-5613

경남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경남메세나협회 X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트프렌즈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와 손을 잡고 6년째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여름, 공모를 통해 창의적 역량을 공유하고 예술적 우정을 나눌 12명의 '아트프렌즈'들이 선정되었다.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아트프렌즈들은 도내 구석구석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은 LH와 예술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도 LH는 이 사업을 통해 창작 환경이 열악한 예술단체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마산아트오케스트라와 경남페스티벌앙상블은 정기연주회를 개최, 시민들과 음악을 나누었고, 아이네앙상블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희망하는 환경음악회 <자연의 소리와 우아한 공명>을 기획하여 기후 위기 시대의 환경보호 필요성을 예술을 매개로 표현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충문화진흥회는 국토방위의 영웅 정렬공 최윤덕 장상의 애국심을 재조명하는 <제1회 선양예술제>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①마산아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②세종국악회관 어울림음악회

문화 다양성의 꽃을 피운 LH 아트프렌즈

LH 아트프렌즈로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경남 전역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다. 예술로발견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완성 작품을 전시하는 팝업전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했다. 세종국악회관은 경남 최초의 발달장애예술인 국악오케스트라인

'청'과 함께하는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남에 거주하는 일본인 작가들로 구성된 해피아츠는 <이로도리(いろど)展>을 개최, 다양한 삶의 색깔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코리아색소폰콰이어는 전문 색소폰 연주자들과 아마추어 동호인의 합동 연주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연주회에는 LH 사내 색소폰 동호회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활동들은 LH 아트프렌즈 사업이 단순한 예술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5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으로 조성한 펀드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2025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안내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7일(금) 18:00까지(예정)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등

예술단체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시설 등

결연형태



1:1 결연

1개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1:多결연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多결연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업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 서식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심사기준

기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적 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사업 추진 계획, 교류협력 활동 계획, 과거 활동실적 등

지원금액

기업지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접수

우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이메일 gnmeceat@gnmeceat.or.kr

문의

(사)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3

완벽함으로 차원을 넘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



작곡가

배우민

▶ 눈앞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나는 20대에 동해 바다에서 거세게 그리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며 이것을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길로 자리에 앉아 고민을 했다. 그런데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파도의 끊임없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에서 받은 느낌을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 감정, 음악적 지식, 철학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음악은 시간적 예술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펼쳐지고 정점이 있으며 그런 것들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감동을 전달한다. 따라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사가 필요하고 주어진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계열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4차원의 세계인 것이다. 반면 그림이나 조각의 이미지 같은 것은 3차원의 세계 즉, 공간적 개념이다. 그림, 사진, 조형 같은 것에서는 시간보다는 공간이 더 지배한다. 따라서 모양, 위치, 색, 빛...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예술이 서로 교차하려면 버리고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엔 음악적 언어가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다. ‘도’, ‘데’, ‘미’가 아닌 현대적인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20대에 만난 파도가 준 영감은 썰물에 길을 잘 못 만나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처럼 처절하고 답답한 무기력을 맞이했다.

모리스 라벨, 클로드 드뷔시 같은 인상주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지를 넘어서 느낌, 감정, 색, 분위기 등이 생각이 난다. 감상자가 차원을 경계 없이 넘나들게 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는 작품인데 작곡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모리스 라벨은 음 하나하나가 이유가 없는 게 없는 정교하고 치밀한 작품을 만들어낸 완벽주의자 작곡가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웅덩이에 갇혔던 물고기는 빠져리게 잘 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더 심취하게 된다.

▶ 정교함과 혁신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

모리스 라벨의 음악은 정교함과 혁신이 결합된 독창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인상주의 작곡가로 분류되지만, 동시대의 드뷔시와는 다른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었다. 라벨의 음악은 고전적 형식의 엄격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풍부한 화성과 색채감을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한다. 특히 스페인 문화에 대한 사랑은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볼레로”와 같은 곡에서 반복적인 리듬과 민속적 요소를 통해 이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기계적인 리듬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도 유명하다. 라벨의 작품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밀한 구성과 실험적인 음향으로 청중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천재

그의 스페인적 색채와 리듬감은 스페인에게 어머니의 영향으로 보인다. 모리스 라벨은 1875년 스페인 국경 근처의 프랑스 시골 마을인 시부르에서 태어나 얼마 안 되어 파리로 이사를 간다. 아버지는 프랑스계 스위스인, 어머니는 스페인계였는데 두 사람 모두 음악 애호가였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화성학을 배우며 음악의 기초를 쌓았다. 14세가 되어 파리음악원 피아노과에 입학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두각을 나타내어 음악 애호가인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라벨의 관심은 기존의 악보를 충실히 재현해 내는 피아노 연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 파리음악원 피아노과에서는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으며 피아노 과목에서 낙제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라벨은 스무 살의 나리오 피아노과를 자퇴한다.

▶ 작곡가의 날개를 달다

라벨은 피아노과를 자퇴하고 2년 후 작곡과로 재입학한다. 이때 가브리엘 포레를 사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라벨은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라벨은 에릭 사티와 같은 당시에는 전통적이지 않은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라벨은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 음악적 발전과 스타일의 변화를 거쳐왔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사망할 때까지 그의 작품은 인상주의와 고전주의 그리고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인 스타일까지 발전해 왔다.

▶ 로마대상 수상에 실패한 라벨

모리스 라벨은 26세에 프랑스 최고의 음악상인 로마대상에 도전했다. 이 상은 루이 14세 시절 시작되었으며, 수상자는 3-5년간 로마에 머물며

국가 지원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수상자는 파리음악원 작곡과 학생 중에서 선발되었고, 보수적인 심사 기준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낙제하여 자퇴의 경험이 있는 라벨은 보수적인 음악계에서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그의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작곡 스타일은 당대의 전통적인 기준과 충돌했다. 라벨은 첫 도전에서 2등을 차지했지만, 이후 본선에서 연달아 탈락했고 마지막 도전에서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라벨 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음악계의 보수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다. 언론과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자 파리음악원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교장이었던 테오도르 뒤부아는 사임했고, 그의 후임으로 가브리엘 포레가 취임하면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을 받아들이는 교육 체제가 시작되었다. 라벨 사건은 파리음악원이 보수적 전통에서 탈피해 현대음악을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 음악계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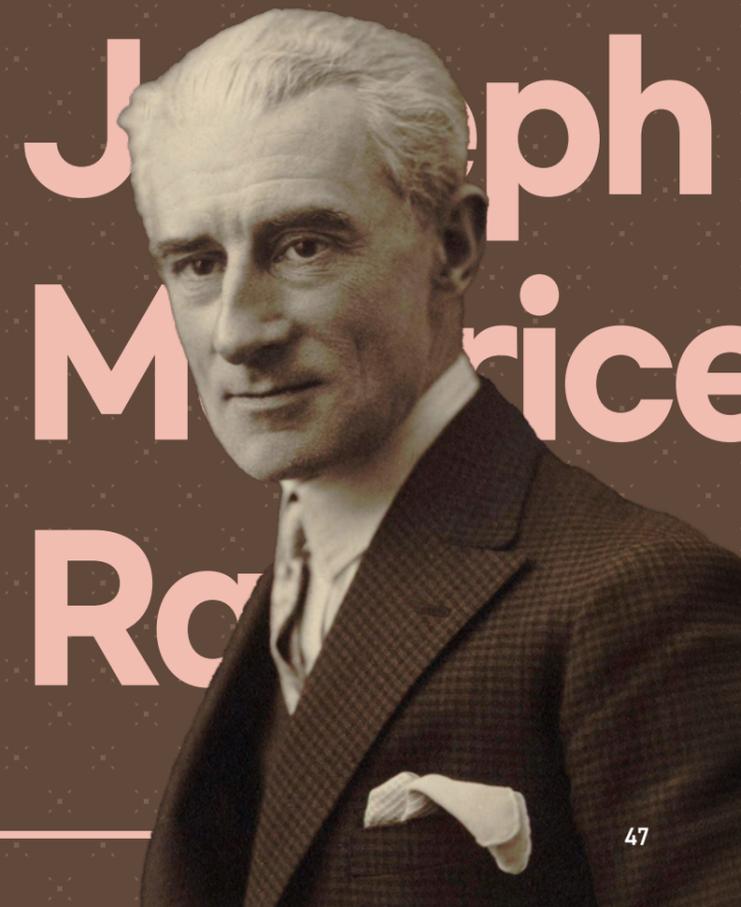
▶ 모리스 라벨과 클로드 드뷔시: 오해와 진실

모리스 라벨과 클로드 드뷔시는 흔히 인상주의 음악가로 함께 분류되지만, 두 작곡가는 서로 다른 개성과 음악적 목표를 지녔다. 일반적으로 드뷔시가 라벨보다 더 주목받았다고 생각되곤 하지만,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당시 드뷔시와 라벨은 음악계에서 각각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드뷔시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음악 세계를 개척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서 혁신적인 화성과 구조로 나타난다. 반면, 라벨은 고전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음악적 표현을 추구했다. 그는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완벽한 구조적 균형을 통해 음악을 한층 세련된 예술로 승화시켰다. 예컨대, 드뷔시의 <바다(La Mer)>가 자연의 감각적 묘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서사와 구조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라벨과 드뷔시의 관계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복잡한 동반자적 성격을 띠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때로는 스타일이나 평가에서 미묘한 차이로 인해 경쟁 구도로 비치기도 했다. 드뷔시는 라벨의 음악을 “세공사처럼 정교하다”라고 평가했으며, 라벨은 드뷔시를 “음악의 혁신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드뷔시의 조기 사망(1918년) 이후, 드뷔시가 혁신적인 인상주의 음악의 선구자로 더 주목받게 되었고, 라벨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라벨은 독창적인 길을 걸으며, 드뷔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20세기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대표작인 <볼레로>는 단순하지만 점진적인 강약 변화로 만들어진 극적인 전개로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라벨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피아노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독주곡 레퍼토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 현대 예술가들이 라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모리스 라벨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작곡가이다. 그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이고 세련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적 감동을 동시에 추구하며, 창의성과 정교함의 균형을 보여준다. 라벨은 특히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세밀한 디테일까지 고심하며 작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았다. 동시에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낙제와 탈락이라는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했다.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라벨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이다. 그는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이를 통해 예술계와 교육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오늘날 우리는 라벨의 작품에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라벨의 완벽을 향한 노력과 도전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며, 창작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다.



이성과 감성의 공존은 Romanticism

보다예술교육연구소 대표, 교육학박사

강미선



우리의 이성이 잠들기를 바라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는 무능한 인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당나귀에 비유하여 판화 연작인 카프리초스(Los Caprichos)와 페인팅(Painting)으로 세상에 폭로하였다.
근대사회로 향한 격변의 시간을 맞이했던 19세기는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권력의 학살을 위한 민중들의 항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치적 위기와 억압에 저항하는 발판을 마련한 프랑스혁명(1789)은 민중들의 무지함을 일깨웠으며, 절대군주제에서 새 시대 서막의 주인공 시민계급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국 역시 집권층의 탄압에 항거한 흥경래의 난이 실마리가 되어 산발적인 민란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과 의병항쟁 그리고 3·1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일반 국민이자 피지배 계급인 민중들의 항거는 시대의 변화와 인간 정신 진보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는 자양분으로 축적되었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저항이라는 주제는 낭만주의(Romanticism)라는 예술사조를 뿌리내리게 하였고, 기존의 가치에 반발하고 감정과 주관적인 해석으로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낭만주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특히 문학이 화가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영웅들의 일대기로 가득했던 중세에서 새롭게 등장한 감정 소설의 출현은 내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관적인 요소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분법적인 반 명제들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시켜 그로테스크한 미까지 포괄하는 독창적인 특성이 있게 되었다.
고야와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1798~1863)는 낭만주의 대표 화가이다. 그들은 격동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혁명과 전쟁 등 역사적 사건을 극대화하여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이미지 표상들을 화폭 속에 담았다.
고야는 계몽주의자로서 시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프랑스혁명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였다. 긍정 수석 화가로 있으면서 명예와 권력도 추구했지만, 티 안 나게 권력자들을 디스하고 시대를 풍자하였다. 1792년 원인 모를 병으로 청력을 상실 이후에는 사실적 표현보다 예술의 본질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1799>와 <1808년 5월 3일>을 보면 고야가 추구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사람들의 괴물적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던가? SNS 악성 댓글이나 전쟁의 경우가 그러하다. 교양 있는 세련미는 가면 뒤 숨어있는 잔인함과 악을 억누르지만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도출 가능한 것으로



은폐되어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인간의 본성을 “문명이란 족쇄에 동물이라는 본성을 누르고 산다”라고 했다. 초자아로 본능적인 요소들을 이성적인 합리화로 가두어 버리지만 필요할 시 소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야는 믿는다. 폭력이 인간에게 강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이성적 판단 능력이라고.
<이성이 잠들면 괴물은 깨어난다>에 잠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은 고야 자신이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위협하고 있는 부영이와 거대한 박쥐, 어마어마하게 큰 고양이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를 노리고 있다. 잠들면 곧바로 공격에 들어가려는 듯.
이성이 마비되고 깨어있지 않은 지식인들은 무책임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으로만 언변을 성토했려는 나약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거짓말의 달인이 된다. 유리컵처럼 위태로운 권력은 한 줌의 바람으로도 쓰러져 버리는 쓸모없는 도구로 전락한다.
실제 사건을 다룬 <1808년 5월 3일>은 43명의 마드리드의 시민들이 ‘반란자’라는 죄명으로 처형된 역사화이다. 정부의 무력함이 낳은 비극이다.
프랑스 제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형 조제프를 스페인

왕으로 임명하였다. 스페인 왕가는 망명을 가게 되었고 정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직 민중만이 분개하였고 1808년 5월 2일 프랑스 군대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은 단 하루만인 다음날 5월 3일 새벽 마드리드의 프린시페 피오 언덕에서 보복으로 프랑군에 의해 시민들이 학살되었다. 흰옷을 입고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반란군의 핵심 인물로 보이며 흰옷은 순결과 결백을 상징하여 순교자를 연상시킨다.
특히 그의 오른손 손바닥에 조그마한 성흔이 있어 예수와 같은 구원자를 암시한다.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자세는 뒷모습으로 표정까지 볼 수 없으니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기계적인 이미지로 인해 감정 없이 오직 명령에 따르는 로봇 같은 느낌을 받는다. 주위의 어둠과 환함의 극적 대비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쓰러진 사람들의 붉은 피로 인해 낭만주의적인 표현이 더 해졌다. 또한 왕권과 교회로 유지된 구체제의 붕괴는 미술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스페인 시민 저항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1808년 5월 3일>은 마네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과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을 제작하는데 영감을 제공하였다.
자유를 추구하고 모든 종류의 억압과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맞선 투쟁은 이전 관습을 깨뜨리고 시민들을 주인의식으로써 정치에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 탈취 등 불법행위를 지시한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험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약속과는 달리 21세기임에도 비상계엄령은 선포되었다. 억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 헤게모니로 작동하지만, 민중은 폭넓은 교육의 참여로 의식화에 의해 무장되어야 한다. 의식화로 각성한 비판의식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사회변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준다.

1. 프란시스코 데 고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1799, 판화, 21.5x15cm,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2. 프란시스코 데 고야, <1808년 5월 3일>, 1814, 캔버스에 유화, 268x347cm,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3. 에두아르 마네,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1868, 캔버스에 유화, 305x252cm
4. 파블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1951, 합판에 유화, 110x210cm, 프랑스 피카소미술관, 독일 바덴국립미술관



Player's Playlist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는 전문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일상의 심을 누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종종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런 순간,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았다. 그들이 추천하는 노래, 영화, 책, 혹은 시 한 편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겨울의 감성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멜로디 가르도

최광문

재즈 콘트라베이스리스트 / 경남유니온즈



자기 소개 뉴욕시립대와 뉴스쿨 재즈연주과를 졸업하여 전)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현재 KBS 1라디오 라이브진주에서 재즈소개 및 유튜브 재즈노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경남도 지정 전문예술단체 경남재즈유니온 대표로 오리지널 전통 재즈음악을 연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 멜로디 가르도는 재즈와 블루스, 라틴 음악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어스름하고 섬세한 뉘앙스의 보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는 교통사고를 겪은 후 음악치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데뷔 앨범 《Womosome Heart》로 호평을 받은 뒤 이어 발표한 두 번째 앨범 《My One and Only Thrill》도 빌보드 전통 재즈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하는 등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점차 거장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1985년 뉴저지에서 미혼모의 사진작가 어머니 아래 태어난 그녀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와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9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16살에 이미 지역 클럽에서 재즈, 팝, 록 음악 커버 곡을 부르며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19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빨간불을 무시하고 불법 회전하던 육중한 지프 체로키 차량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머리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뇌 손상으로 1년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며 걸거나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심지어 한 시간 전에 일어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기억력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치의는 음악이 뇌 손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르도에게 음악을 작곡하고 기타를 배우며 노래를 부르도록 권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음악 치료가 외상 후 인지 능력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몸소 증명해냈다.

부상으로 빛과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듣거나 연주했던 음악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아노 의자에 편히 앉을 수 없게 된 대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병상에서 탄생한 앨범 《Some Lessons》는 지역 라디오의 주목을 받으며 점차 알려졌고, 이후 그녀는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버브에서 공식 데뷔 앨범을 발표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여전히 그녀는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무대에 오른다. 또한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전기 신경 자극기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부른다. 최근에는 앨범 《Sunset In The Blue》를 발표했는데,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과 그녀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분하고 서정적이며 부드러운 음악들로 가득 찬 이 앨범은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음악을 선택했던 그녀의 여정에는 남다른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다. 개성과 비범함으로 이제 메이저급 스타 뮤지션이 된 멜로디 가르도의 감동적인 음악을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

나는 반딧불

표주홍

가수 / 아트워크



자기 소개 저는 관객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버스커이자 경상남도의 지역가수입니다.

추천 이유 현대 사회에서 SNS는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친구의 근황을 확인하거나, 유명 인사들의 최신 활동을 살피는 등 SNS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돕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SNS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작은 화면 속, 수많은 사람들의 여행 사진, 럭셔리한 생활, 성공적인 경력 등을 접하면서 때때로 나 자신과의 비교하고,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성공의 기준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곡은 황기람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다. 이 곡은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라는 가사를 통해 나만의 빛을 내며 자아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노래처럼, 우리는 SNS 속 정제된 타인의 화려한 삶에 휘둘리지 않고, 반딧불처럼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며 우리가 자아를 잃고 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반딧불이 빛을 잃지 않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에 가려진 내면의 빛을 잃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성공이 내 기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부정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면의 빛을 찾고, 자기만의 가치와 목표를 세울 때,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삶을 따라가려 애쓰는 대신, 내 안에 있는 고유한 잠재력이라는 작은 불빛을 시작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냥 사람

한혜림

미술작가 / 사람153



자기 소개 영상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시각적인 언어를 주로 다루지만 그 과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추천 이유 겨울이 오면 왠지 마음까지 서늘해진다.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계절, 차가운 바람이 마음을 휩쓸 때면 생각나는 책이 있다. 어쩌면 그 속의 사람이 생각나는 것일지도 모를 책, 홍은전 작가의 '그냥 사람'이다.

이 책은 저자가 13년간의 노들야학 활동을 마친 뒤, 인권 활동가로서 노들과 세상에 대해 쓴 5년간의 칼럼을 엮어 만들어졌다. 책의 서문에는 저자 홍은전이 우연히 종로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 장면이 나온다. 강연자는 종로의 뜨는 관광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언급하며 그 세계적 가치를 소개한다. 그리고 강연은 끝이 난다. 터덜터덜 강연장을 나서는 저자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뒤로 생존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을 되낸다. 저자는 자신이 알고 강연자는 알지 못하는 세상, 혹은 강연자가 알지만 그녀는 모르는 세상을 떠올려본다.

책장을 넘기며 우리는 저자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시설에서 벗어난 이들의 삶과 세상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저자가 들려주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곱씹어 본다. 그 세상을 나는 왜 모를까를 생각하다 보면 저자가 서 있는 땅이 떠오른다. 약을 치지 않는 농부의 텃밭에 곤충들이 찾아오고, 햇빛이 닿는 자리에 작은 풀들이 자라나듯, 그녀가 있는 곳에는 '그냥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을 읽을 때면 마치 차가운 입김 너머 깨질 듯한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쉽게 단박에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덮어버릴 수도 없는 조심스럽고도 깊이 스며드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얇은 종이 위의 글자들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진 얼음 사이로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저자는 결국 독자의 발을 물에 적시며, 그 물의 차가움과 그 속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들려준다. 찰랑, 찰랑. 얼음 사이 반짝이는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남문화예술회관 2025 상반기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3. 27.(목) 19:30



정선아×임태경×신영숙
뮤지컬 스타 콘서트
4. 5.(토) 15:00



탱고 아르헨티나
Tango Argentina
4. 24.(목) 19:30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5. 2.(금) 19:30
5. 3.(토) 15:00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판소리 고법
가치를 같이 '동행'
5. 23.(금) 19:30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6. 3.(화) 19:30

패키지 최대 40% 티켓할인

패키지
티켓오픈

2. 4.(화) 11:00

개별
티켓오픈

2. 7.(금) 11:00

문의

1544-6711

창원문화재단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성산아트홀

박남정 SHOW
2.11(화) 11:00 / 소극장

서형민의 세레나데
3.11(화) 11:00 / 소극장

Pops in Jazz with 안드레황
4.8(화) 11:00 / 소극장

앤서니 브라운展
1.4(토)~3.9(일) / 전시장

키즈 시네마 클래식
2.15(토) 17:00 / 소극장

클래식 싱!싱!싱!
4.5(토) 17:00 / 소극장

클래식 댄스!댄스!
6.21(토) 17:00 / 소극장

315아트홀

꽃, 별이지다(연극)
3.21(금) 19:30~22(토) 15:00 / 소극장

대니구
4.30(수) 19:30 / 대극장

어린이날 축제-우리들 세상
5.5(월) / 일원

가곡의 별들
4.23(수) 19:30 / 대극장

롤리팝
5.3(토) 11:00,14:00,16:30
5.4(일) 11:00,14:00 / 소극장

유다빈밴드x한로로
6.25(수) 19:30 / 대극장

진해아트홀

황금시대 오스트리아 거장展
1.10(금)~4.6(일) / 야외공연장 전시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NH농협 경남본부
 ㈜다우링에너지
 ㈜무학
 범한산업(주)
 ㈜씨티알
 우수AMS(주)
 ㈜인산가
 임경숙
 ㈜한국아나세
 ㈜화인테크놀리지

이사사

경남오페라단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리베라관광개발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영광산업(주)
 원광건설(주)
 창원대학교 음악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대양산업가스(주)
 청호산업(유)

회원사

가야BBS(주) 가야문화축제제작위원회 가야오페라단 ㈜가온아이엔씨 ㈜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사)경남기독문화원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경한코리아 ㈜고려이노테크 ㈜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선치과의원 고운치과병원 광덕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구구 ㈜국제전기 ㈜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금강종합건설 ㈜금술개발 ㈜금아하이드파워 ㈜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남광디씨텍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느티나무의 사랑 늘푸른 요양병원 당당한방병원 ㈜대경 대경건설(주) ㈜대길티에프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종이엔에프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대호테크 더 스페이스 갤러리 ㈜덕광중공업 ㈜도원리사이클링 ㈜동구기업 동성정공 ㈜동은화학 동진해금(주) 두남화학 ㈜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엘(주) 디케이리크(주) 라온산업개발(주) 리탄성형외과의원 ㈜마창대교 ㈜만보건설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재)봉림장학회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부평디엔피 ㈜복성산업 ㈜사릭 ㈜산호수출포장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일정보시스템(주) ㈜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주)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상화도장개발(유) ㈜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성우	㈜성환금속 ㈜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세양정공 ㈜세중씨엔지 ㈜세호 송죽전장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주) ㈜세노텍 아나파약국 아진기계 ㈜애드테크 ㈜에스 ㈜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엔지피 ㈜영신오토모티브 ㈜영일정공 ㈜영진테크 ㈜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웰템 유림건설(주) 윤찬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남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나인파워텍 이수디엔씨(주) ㈜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임진각 ㈜잇편 ㈜장생도라지 ㈜장성E.P.S ㈜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좋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중앙금속 ㈜지엔티	진해성모병원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이의료재단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케이조선 코리아합창제조직위원회 ㈜코앞건설(참신한건설) ㈜코텍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티케이지태광(주) ㈜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벨브엔지니어링(주) 하동 케이블(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반도 ㈜한창테크 ㈜해드림엘피씨 해성메탈(주) 현대공업(주) ㈜현대기업 현대로템 ㈜체동 ㈜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흥일기업(주) JK컨벤션웨딩 STX엔진(주) the큰병원
---	---	--	--

회원 가입 안내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1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 **예술단체 워크숍**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 Support Projects

- **찾아가는 공연** 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문화공감**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 **문화경영도서**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 **예술 동아리 지원**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지정기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 회원사와의 협력사업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어린이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 **경남메세나대회**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 **경남메세나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와 자연 그리고, 여유 가득한

복합 웨딩 문화 공간

JK 컨벤션웨딩

Multi-Purpose Wedding Venue

제이드가든 : JADE GARDEN

시원한 개방감과 자연채광이 만드는 야외컨셉의 트렌디한 웨딩홀

그랜드볼룸 : GRAND BALLROOM

다채로운 조명과 절제된 화려함으로 구성된 호텔 연회장 스타일의 웨딩홀

더 채플 : the CHAPEL

순백의 여백과 공간감 있는 층고가 주는 성스러운 분위기의 소규모 웨딩홀

더 정원 : the GARDEN

오롯이 자연이 만드는 순도 100% 야외 웨딩홀

**JK CONVENTION
WEDDING**

상담문의 /
055.552.7223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0-40

대표 **강호준**

포스코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미래창원의 기준을 세우다
신화더플렉스시티



www.sinhwasteel.com

창원의 모든 특권을 담은
비즈니스 랜드마크
신화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공장

『신화 더 플렉스 시티』 준공!!

50여년을 한결같이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로
창원시와 경남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창원국가산업단지!

이제, 이곳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 50년을 기약하며,
저희 『신화 더 플렉스시티』가
“문화와 젊음이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힐링공간”으로
힘찬 출발을 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 NO.1 랜드마크’를 꿈꾸며,
그리고,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도약을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화 더 플렉스시티』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소중한 관심,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신화철강(주)/주세움
대표이사 정연숙 배상

취급품목

철근, 철판류, 강관류, 형강류, 봉강류 등 다양한 철강제품

포스코건설
분양문의 055) 255-6688

시행 위탁 및 분양 허세를 시행 수탁 우리자산신탁㈜ 시공 ㈜포스코건설, 에이스건설㈜

철강 종합 백화점
신화철강(주) 055) 238-7878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3-6

분양문의 055) 297-0006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Global Top Engine Maker
World best
STX Engine

Global Top 엔진메이커,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STX엔진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역량강화와 미래사업 확대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과 속도경영, 기술경영의
이념을 실천하여 Global Top 엔진메이커,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stx엔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36

- 전 화 : 055) 280 - 0114
- 팩 스 : 055) 285 - 2030
- 홈페이지 : <http://www.stxengine.co.kr>

2024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경남·울산지역 재투자평가
5년 연속 최우수등급!

BNK경남은행이 지역재투자로
고객행복과 지역경제를 키워갑니다



지역재투자 평가란?

-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 평가항목은 지역 내 자금, 공금,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점포수 등 인프라,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 전략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